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에 문승욱 차장 선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에 문승욱 방위사업청 차장이 선임됐다. 문승욱 선임 실장은 1965년생으로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와 미국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를 취득했다.

행시 33회로 공직생활을 시작해 중견기업정책관, 시스템산업정책관을 거쳐 방위사업청 차장을 역임해 왔다.

대한건설협회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에 장경래 광명종합건설 대표



대한건설협회(회장 유주현)는 서울 논현동 소재 건설회관에서 '제2대 사회공헌사업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장경래 광명종합건설 대표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임영현 동산종합건설 대표와 성우중 도원이앤씨 대표가 사회공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임기는 오는 2020년 2월 29일까지다.

사회공헌위원회는 건설협회 내 사회공헌사업과 관련해 장학사업과 유관기관 협력사업, 대국민 홍보사업 등을 심의하는 조직이다.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전보 ▲산업기술정책관 이상훈



김덕섭

벤틀리 시스템즈 코리아 지사장

“비 인스파이드 어워드(Be Inspired Awards)는 벤틀리 시스템즈가 인프라 설계·시공·운영 등 엔지니어링 분야 발전에 기여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관련 엔지니어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상입니다. 매년 ‘더 이어인 인프라스트럭처(The Year in Infrastructure)’ 컨퍼런스와 함께 하는 글로벌 엔지니어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어요. 최종 결선에 진출하는 ‘파이널리스트(Finalist)’들은 세계 각국에서 모인 600여명의 업계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내 출품 작품은 보통 15~16개 정도였습니다. 올해는 출품작 수가 대폭 늘어나 35개를 넘었어요. 애석하지만, 최종 결선 진출 작품은 배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결선 진출 작품들을 보면, 이 같은 부진의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52개 파이널리스트 중 20개 작품이 ‘아이-모델(i-model)’을 통한 데이터 통합 관리를 실현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과거에는 소프트웨어를 자신의 분야에서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최근에는 디지털화를 통한 프로젝트 전반의 데이터 통합 관리가 주목받는 트렌드를 보여줍니다.”

“디지털화 통한 데이터 통합관리가 트렌드”

한국, 설계·시공·운영 등에 디지털 시스템 적용위한 준비 필요

김덕섭 벤틀리 시스템즈 코리아 지사장은 “지난해의 경우 삼성중공업의 헬 부유식액화천연가스설비(FLNG) 프로젝트가 전 세계 수많은 작품들과 경쟁을 이기고 파이널리스트에 올랐다”며 “아쉽게도 올해는 국내에서 파이널리스트를 배출하지 못했지만, 내년에는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장은 “한국의 작품들도 충분히 혁신적이며, 그러면 프로젝트에도 뒤지지 않을 기술력이 돋보인다. 하지만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디지털 3D 모델의 통합 엔지니어링이 대세화되고 있는 최근 추세를 따르지는 못하고 있다는 평가”라며 “특히 설계, 건설뿐 아니라 운영 단계에서도 디지털

시스템을 적용하는 추세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측량(Surveying), 엔지니어링(Engineering)에 건설(Construction), 구상(Conception), 선택(Option), 검사(Inspection) 등을 융합한 개념인 컨스트럭처니어링(Constructioneering), 컨셉서니어링(Conceptioneering), 옵션서니어링(Optioneering), 인스펙서니어링(Inspectioneering) 등이 적용된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이 하나의 플랫폼 아래 데이터를 공유하고, 클라우드를 통한 협업을 진행해야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된다는 얘기에요. 삼성중공업 헬 프로젝트는 FLNG 건설 과정에 클라우드 기반 컨스트럭처니어링을 활용해 공기를 줄이고, 신뢰성을 높인 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프로젝트라는 평가를 받았죠.”

김 지사장은 “내년에 출품될 작품들의 경우 이런 트렌드를 반영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이 다수 존재해,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며 “국내 고객들이 프로젝트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다 나은 사업을 수주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트렌드와 솔루션을 소개하고, 기술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싱가포르=김병일 기자 kube@

서울에너지공사, ‘반부패·청렴 결의대회’ 개최

서울에너지공사(사장 박진섭)는 지난 11일 본사 강당에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결의대회 및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서울에너지공사가 반부패·청렴문화 실천을 통해 건전한 지방공기업 문화를 정착하고, 나아가 신뢰받는 서울시 공공기관으로서 깨끗하고 투명한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대회는 남녀직원 2명이 대표로 나서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서’를 낭독하고, 전 임직원을 대표해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과 김철수 감사가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밖에 이날 행사에서는 서울에너지공사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표방하기 위해 지난 5월



박진섭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왼쪽)과 김철수 감사가 11일 ‘반부패·청렴 결의대회 및 서약식’에서 청렴 실천 서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진행된 ‘사내 윤리경영 포어 공모’ 수상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박경민 기자 pkm@

동서발전, 3년간 42억원 투입, 30개 글로벌 청년창업 성공신화 만든다

한국동서발전이 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한국동서발전(사장 직무대행 박희성)은 12일 울산 본사에서 글로벌 창업 활성화 공모에서 최종 선정된 5개 기업의 창업지원을 위한 ‘EWP-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 업무 협약식’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한국동서발전은 지난 8월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EWP글로벌 스타트업 지원프로그램’을 기획, 총 14개 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지난 9월 제1기 동서발전-스타트업 아카데미를 진행했다.

한국동서발전과 울산테크노파크는 선정기업들의 아이디어가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앞으로 3년간 총 42억원을 투자해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획득, 마케팅 지원 등의 다양한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오는 11월 판란드 ‘에스포이노베이션 거든’의 스타트업 집중 육성프로그램 연수와 더불어 2008년부터 시작된 유럽 기반의 전 세계 스타트업 행사인 ‘Slush(슬러쉬) 2017’ 참가를 통해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문 스타트업 멘토링단의 상시 컨설팅 지원과 신규 인력채용 지원,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IR을 통해 안정적인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도 내비쳤다.

박경민 기자



대성안전검침사업본부 안전순찰대 업무 협약

대성안전검침사업본부 원주지점(지점장 방준영)과 원주경찰서는 최근 원주경찰서 회의실에서 ‘안전순찰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서일전선이 생산한 친환경인증 전선 HFIX
부드럽고 시공이 편리합니다.**

HFIX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SEOIL 서일전선주식회사

www.seoilcable.co.kr

경기도 동두천시 강변로 762번길 15
TEL 031.866.4101 FAX 031.866.9827

